

부구청장 인사 갈등...市 “인사교류” 區 “갑질행정”

광주 5개 구청장, 시에 부구청장 임면권 요구

동구·광산구 단행 예고...정기인사 차질 가능성

간부 공무원 인사권을 둘러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주 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중으로 각 자치구가 요구하고 있는 부구청장 임면권 4급 광주시 전입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구청장이 요구한 부구청장 인사권 수용과 4급 서기관 의 시 전입 요구 등과 관련 최종 입장 정

리를 위해 자치구로부터 의견을 수렴중이다.

시는 이 같은 요구가 지난 2015년 4월 5개 자치구와 맺은 인사교류안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구가 부구청장 인사권 등을 행사할 경우 ▲7급 이하 인사교류 전면 중단 ▲사서직렬 통합인사 중단 ▲자치구별 5급 윤번제 전입 중단 ▲교육 실무수습비 지원 중단 등을 통보하는 등 강경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6·13 지방선거 이후 민선 7기

가 출범하면 인사교류안에 대해 협의하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구청장들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병호 행정부시장이 마지막으로 자치구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 5개 구청장은 지난 18일 조찬 모임을 갖고 내년 1월초로 예정된 부구청장 인사 교류 문제 등을 논의했다. 황봉주 시 자치행정국장도 배석한 이 자리에서 일부 구청장들은 시가 관행적으로 행사했던 부구청장 인사권 등이 ‘갑질 행정’이라며 강하게 성토했으며, 황봉주 국장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

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시의 부시장, 부군수, 자치구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행배 광산구청장은 내년 초 3급 부구청장(부이사관)을 자체적으로 승진·발령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동구청장도 부구청장을 구에서 발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을 연말로 예정됐던 현 부구청장의 공로연수 시점도 내년 6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혀 내년 시 정기인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평화 증진시켜 생명의 가치 보존해야”

김희중 대주교 성탄메시지

전주교광주대교구장 김희중(사진) 대주교는 21일 광주 대교구청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성탄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대주교는 이 성탄메시지에서 “생명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하느님 영역에 속한다”며 “생명의 복음, 생명의 문화를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 논란이 일고 있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면의 가치를 보존하고 존엄성을 수호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미술에서도 서로 다른 색이 조합을 이루고 오케스트라도 다른 악기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대주교는 “적폐청산으로 거론하는 내용들이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아니지 않느냐”며 “적폐로 인한 피해로 국부를 유출했고, 노력의 결과를 공평하게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주교는 5·18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역사회는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사인식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려하는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을 돌아본 소회를 밝히며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자도 강조했다. “춥쌀 사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위문화를 한단계 성숙하게 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모든 공동체의 점진적 변화는 쇠신, 혁신, 개혁 단계를 통해 이뤄집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려면 정상적인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타협하고 밀고 당기는게 대화인데 자기 목표만 고집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름이 곧 틀림이라는 공식을 접어두는 것이 좋다”며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3대 벨리’

기업유치 총력

범시민 추진위 출범

광주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의 근간이 될 ‘3대 벨리(친환경자동차, 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 기업유치를 위해 지역 각계 각층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는 21일 광주시의 7층 대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로 3대 벨리 기업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와 함께 광주시의 주요 전략산업들이 대거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데 이어, 기업유치 범시민 대책위까지 출범함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3대 벨리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지역 내의 지를 모으기 위해 정계와 경제계, 학계, 노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 90여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상열 광주시의 회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으며 추진위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추진위원회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역량 결집, 유치 분위기 조성, 정책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집행위원회와 분과별 위원회를 두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은 “추진위 출범은 당연하고 너그러워 광주형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경제, 노동, 언론, 시민단체 등 지역 노사민정인 연대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의 연대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시작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1일 오전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핵심 국책사업인 ‘3대 벨리(에너지, 자동차, 문화콘텐츠) 기업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김상열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 경제, 교육, 노동, 자동차부품기업,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추진위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 시종 AI도 고병원성...방역 비상

출입차량 농장 83곳 오가

영암군 시종면 육용오리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H5N6형으로 판명됐다. 이 농가를 출입한 차량 9대가 나주·영암·광주 등 83곳의 다른 농장을 오간 것으로 드러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영암군 시종면 육용오리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로 확진했다.

이 오리농가는 지난 10일 확진 판정된 영암 신북면 종오리농장에서 새끼오리를 분양받은 곳이다. 이 오리농가를 출입한

차량 9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광주와 전남 13개 시·군의 농가 83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리 주산지인 나주 11곳, 영암 24곳, 장흥 15곳을 오갔다.

나주(62 농가·88만8000 마리), 영암(33 농가·69만 마리)은 전국에서 오리 사육량 1, 2위를 다투는 지역이다. 장흥(24 농가·42만 마리)도 사육량이 많을 뿐 아니라 종오리 농가에 오리를 분양하는 원종오리 농장이 있어 추가 발생 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 14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지속해서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발생 농장이 전국 최대 오리 계열화 사업자인 ‘다슬’ 계열인 점을 고려해 다슬계열 전국 모든 가금류와 차량·

사람·물품 등에 이동금지 명령을 내렸다.

더욱이 AI가 추가로 발생한 농가는 지난 10일 발생한 영암 신북면 종오리 농가로부터 새끼를 분양받은 곳으로서 농장 간 직접 감염 우려를 낳았다. 방역당국은 신북면 농가로부터 직접 감염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변 지역에 이미 오염원이 퍼졌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신북면 종오리 농가에서는 10곳에 새끼 오리를 분양했으며 이 농가를 방문한 차량은 30개 농가를 드나들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역학 관련이 있는 농가를 일제 검사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을 소독해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발생지역 10km 이내 방역대 이동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남도 자체적으로 내년 3월까지 사육을 제한하는 휴지기 운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의회 ‘상승’ 전남도의회 ‘하락’

7위 (11위)
권익위 청렴도 평가...국·공립대 순천대 5위·전남대 21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회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광주는 4계단 오른 반면 전남은 9계단 추락하며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국·공립대 중에서는 순천이 2급으로 상위권에 포함된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5등급으로 밀렸다.

21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7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광주시의회는 10점 만점에 6.23점으로 7위, 전남도의회는 5.94점으로 11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지난해 11위에서 4계단 올랐으나 전남은 지난해 2위에서 9계단 추락했다. 등급별로는 광주와 전남 모두 3등급이다.

광주는 지역주민 평가에서는 8위였으

나, 직무관계자와 경제사회단체·전문가 평가에서 나란히 4위를 차지한 것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전남은 직무관계자 13위, 경제사회단체·전문가 14위, 지역주민 16위로, 3개 영역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

표본조사로 이뤄진 기초의회와 30개 조사대상 가운데 광주 북구의회가 5위(2등급), 전남 여수시의회가 10위(2등급)로 비교적 호평을 받았다.

전국 3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순천대가 2등급 5위, 전남대가 3등급 21위, 목포해양대가 3등급 24위, 목포대가 4등급 30위를 차지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31위 5등급으로 최하위권에 그쳤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연수원·요양병원 호텔
변경 가능
· 구례 산동 온천지구, 4층, 대형 모델
· 대 573평, 건 683평, 객실 58개
· 전체 울수리, 연3억 이상 순수익가능
· 매 18억, 주인직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서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배속식~ 하루 2번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 약!!!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소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